

■ 클라리넷 이야기(2)

희귀한 클라리넷의 세계

글 | 성평모 _ 서울대학교 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 kmsung@acoustics.snu.ac.kr

지난 호에서는 리코더에서 샬뤼모를 거쳐 클라리넷이 탄생하게 된 진화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클라리넷의 탄생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출현했던 희귀한 클라리넷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바세트혼도 일종의 클라리넷 가족

클라리넷은 지난 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8세기 초에 탄생하였으며, 같은 부류의 악기로 보통의 소프라노 클라리넷(Bb)보다 완전4도 낮게 F로 조율된 저음의 악기인 바세트혼이 18세기 후반부에 나타나게 되었다. 초기의 바세트혼은 곧은 관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접합시키거나 굽

은 관의 형태로 만들었다(그림1, 2 참조). 이렇게 제작한 이유는 낮은 음역의 소리가 발생하려면 상대적으로 관의 길이가 길어져야 하는데, 소프라노 클라리넷과 같이 직선형의 관을 사용할 경우 그 당시의 단순한 키 시스템으로는 팔의 길이가 짧아 연주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바세트혼은 현재까지도 살아남아서 사용되고 있으나, 그 외모는 현대적인 클라리넷 가족과 비슷하게 통일된 형태로 변하여 음역이나 악기의 크기가 알토 클라리넷(Eb)과 비슷하다. 차이가 있다면 다른 클라리넷 가족의 악기보다 기보음 상에서 낮은 음역 쪽으로 4개의 반음을 더 내려갈 수 있다.

독일서 지팡이로 쓸 수 있는 클라리넷도 제작

〈그림 3〉에서는 두 가지의 희귀한 클라리넷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왼쪽의 밑에 끝부분이 둥그렇게 되어있는 악기는 1800년경에 제작된 ‘클라리넷 다모레’로서, 오보에 종류에 ‘오보에 다모레’의 관 모양과 비슷하게 제작된 것이다. 악기 밑 부분의 둥근 구조에 의한 공진 때문에 특이한 음색을 갖게 된다. 오른쪽 악기는 지팡이형 클라리넷인데 19세기 전반부에 독일에서 제작된 것이다. 산보시에 지팡이로도 쓸 수 있고, 상부의 손잡이와 하부 부분을 빼면 클라리넷이 되어 악기로 연주할 수도 있다. 지팡이 형태로 되어있는 악기 중에는 클라리넷 외에도 바이올린이 있는데, 독일어 이름을 의역하면 ‘춤 선생 바이올린’쯤 된다. 아마도 유럽에서 17~19세기에 춤 선생은 보통 나이가 든 남성이었기에 지팡이가 필요하였고,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오디 오시스템이 없었으므로 춤에 필요한 음악 연주가 가능한



〈그림 1〉 1805년에 제작된 바세트혼(F)



〈그림 2〉 1800년 경에 제작된 바세트혼(F)



〈그림 3〉 1800년 경에 제작된 클라리넷 다모레(왼쪽)와 19세기 전반부에 제작된 지방이형 클라리넷(오른쪽)

다목적 지팡이가 안성맞춤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4〉에서는 1930년대에 제작된 '1/4음-이중클라리넷'으로 관의 길이가 조금 차이가 나는 두 개의 클라리넷을 한 몸체에 갖고 있다. 마치 삼-쌍둥이처럼 이런 클라리넷을 만든 이유는 필자가 본지 금년 2월호(87~89쪽) '소리의 과학: 음계와 표준음고'에서 언급한 조율과 관계가 있다. 피타고라스 음계에서 3도 음정이 깨끗하지 못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 생긴 것이 중간음 음계인데, 그림의 쌍둥이 클라리넷은 전조시 음정의 편차를 극복하기 위해 1/4음-중간음 음계 방법을 활용하여 고안해낸 악기이다.

금속으로도 클라리넷 제작할 수 있어

〈그림 5〉의 왼쪽은 필자가 소장하고 있는 금속으로 만든



〈그림 4〉 1932년에 제작된 1/4음-이중클라리넷(같은 악기를 네 가지 다른 방향에서 본 것)

브라스 클라리넷을 보여주고 있다. 비교를 위해 같은 그림 오른쪽에는 보통의 아프리카 흑단으로 만든 클라리넷을 보이고 있다. 클라리넷의 재질은 18세기 초 발명 당시로부터 대략 19세기 중엽까지는 독일 등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면서도 단단한 너도밤나무와 같은 것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초기의 클라리넷은 대부분 연한 갈색 계통의 색깔을 갖고 있었다. 현악기의 몸체나 피아노의 향판은 그 자체가 잘 진동해야 하기 때문에 가볍고 진동에 적합한 가문비나무를 사용한다. 그러나 목관악기의 몸체는 자기 자신이 진동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부의 공기 기둥이 밀폐된 공간에서 진동하도록 일종의 장벽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단하며, 필요 없는 진동을 유발시키지 않을수록 좋다. 유럽인들이 세계 여러 지역으로 뻗어가며 식민지를 개척한



〈그림 5〉 브라스 클라리넷(왼쪽)과 보통의 아프리카 흑단 클라리넷(오른쪽)



〈그림 6〉 소프라노 색소폰(왼쪽), 소프라노 클라리넷(가운데), 타로가토(오른쪽)

부산물로 목관악기 제작에 적합한 목재로 발견한 것이,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와 모잠비크에서 나오는 ‘그레나딜라’라고 불리는 아프리카 흑단이다. 목관악기 제작에서 그레나딜라와 쌍벽을 이루는 목재는 속칭 ‘남아메리카 자단’이라 불리는 ‘코코볼로’이다. 코코볼로는 색깔이 검은색이 아니고 짙은 갈색이어서 그레나딜라와 코코볼로는 육안으로 쉽게 구별이 가능하다. 오늘날 오보에나 클라리넷 등의 목관악기는 주로 그레나딜라 또는 코코볼로 목재를 사용하여 제작되고 있다.

〈그림 5〉의 브라스 클라리넷은 1, 2차 세계대전 등의 큰 전쟁 시에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로부터 유럽까지 목재의 운송이 어려웠던 시절에 교육지책으로 금관악기나 색소폰 제작에 쓰이는 금속합금으로 제작한 악기이다. 얼핏 생각하면, 이 금속제 클라리넷을 불면 귀에 거슬리는 금속성의 음색이 나올 것 같지만, 필자가 음악음향학 수업시간에 브라스 클라리넷을 불어 보이면 학생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보통의 클라리넷 음색과 그리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악기의 음질은 미세한 차이가 큰 차이로 인식될 수도 있어서 역시 최고의 클라리넷은 최고급 품질의 아프리카 흑단으로 제작하는 것이 정석으로 되어 있다.

헝가리 민속악기 타로가토

끝으로 희귀한 클라리넷 한 가지를 더 소개하고자 한다. 〈그림 6〉의 오른쪽 끝의 악기는 필자가 소장하고 있는 헝가리의 민속악기인 ‘타로가토’이다. 타로가토는 소프라노 색소폰과 비슷하게 원추형 관의 몸체를 갖고 있으며 마우스피스와 리드는 클라리넷과 비슷하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타로가토를 일종의 나무로 만든 소프라노 색소폰이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또 다른 문헌에서는 희귀한 클라리넷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타로가토의 기원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1640년대의 기록에서 그 이름을 발견할 수 있다. 초창기에는 오보에처럼 겹리드를 사용하였으나 오늘날에는 클라리넷과 비슷한 마우스피스에 클라리넷 리드를 그대로 사용한다.

〈그림 6〉에서는 비교를 위해 왼쪽에서부터 소프라노 색소폰, 소프라노 클라리넷, 그리고 타로가토의 순서로 보이고 있다. 악기의 재질은 보는 바와 같이 왼쪽에서부터 금속(소프라노 색소폰, 그레나딜라(소프라노 클라리넷), 코코볼로(타로가토)이며, 이들이 모두 목관악기에 속한다. 그 이유는 지난 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목관악기와 금관악기의 분류 기준은 악기의 재질보다는 소리를 발생시키는 원리와 음계를 연주하는 방법이 더 우선하기 때문이다.

지난 호와 이번 호에서는 클라리넷의 탄생에서부터 그 진화과정 중에 생긴 몇 가지 희귀한 클라리넷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국악기의 경우 조선조 초기에 저술된 악학궤범에 근거하여 가능한 한 원형보존을 위해 600여 년 간 노력하고 있는 반면, 유럽의 악기 제작자들은 여러 가지 환상(판타지)과 실험정신으로 악기의 진화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악기의 개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⁵¹⁾



글쓴이는 독일 아헨공대에서 음향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독일 아헨공대 음향공학연구소 연구원, 서울대 뉴미디어 통신연구소 소장, 한국 음향학회 회장, 대한 전자공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